



초원

for Church

● 2027년까지 10개 교회 선착순

AI 시대, 교회의 내일은 설교 엔진이 결정합니다

설교 요약노트 · 설교 검색 엔진 도입 제안서

교회 담당자 귀중

초원 드림 · church.chowon.in · shalom@chowon.in



이 문서의 순서

01 왜 지금인가

성도가 교회를 찾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 누가 쓰고 누가 읽나 ·
저장은 축적이 아닙니다

02 무엇을 받나

성도가 손에 쥐게 되는 것들
· 질문에 답하는 설교 · 주간 설교 노트 · 설교 도서관 ·
제작 5단계

03 왜 초원인가

이 일이 어려운 이유, 그리고 저희가 해 온 일
· 기술적 난이도 · 할루시네이션 방지 · 4년의 검증 ·
외주와 비교

04 도입과 계약

결정과 실행에 필요한 것들
· 전용 앱의 뜻 · 교회가 할 일 · 도입 절차 · 계약 구조
· 다음 단계



01

왜 지금인가

성도가 교회를 찾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쓰고, 누가 읽습니까

저장은 축적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미 시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설교를 찾아 주는 검색창이, 성도님 손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01

성도가 질문을 적습니다

“요즘 너무 지칩니다. 그만둬야 할까요?”
처럼 마음에 있는 말을 그대로 적습니다.

02

답이 될 설교를 찾아 줍니다

목사님이 그동안 전하신 설교 가운데, 그
질문에 닿는 대목을 찾아 보여 드립니다.

03

그 설교로 바로 갑니다

3년 전 주일 설교라도 몇 분 몇 초에 하신
말씀인지까지 찾아 그 자리부터 들려
드립니다.

‘AI’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신다면 — 목사님의 설교를 전부 듣고 전부 기억하는 성실한 조수 한 사람이 교회에 생긴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조수는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쓰고, 누가 읽습니까

매일 쓰는 사람

성도

질문하고, 매주 카카오톡으로 노트를 받고,
지난 설교를 다시 듣습니다. 앱을 여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결정하고 운영

교회

도입을 결정하고, 매주 10~20분 노트를
확인해 발행합니다. 그 밖의 운영·개발·
보안은 초원이 맡습니다.

담임목사님

전한 말씀이 정리되어 유산으로 남습니다.
사역 중에는 성도의 묵상을 돕고, 은퇴
후에도 검색되고 인용됩니다.

설교를 찾는 사람은 성도이고, 그 길을 열어 주시는 분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찾을수록, 담임목사님의 설교는 유산이 됩니다.



저장은 축적이 아닙니다

영상은 남는데, 그 안의 말씨는 아무도 꺼내 쓰지 못합니다.

AS-IS

설교 영상이 쌓이기만 합니다

주일1부_예배영상.mp4 ?

주일1부_예배영상(1).mp4 ?

수요예배_0402_최종.mp4 ?

× 이 영상 안에 정확히 어떤 문장이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TO-BE

문장 하나까지 찾아집니다

2025.3.9 · 00:12:31

“광야는 벌이 아닙니다. 붙들고 계신 자리입니다.”

2024.9.22 · 00:21:07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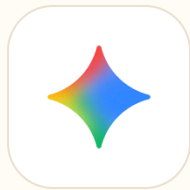
✓ 어느 설교 몇 분 몇 초에 나온 문장인지까지 찾아 드립니다

전체를 글로 옮겨 검색 엔진에 올리고, 딥러닝으로 뜻까지 학습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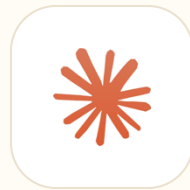
성도는 이미 AI에게 묻고 있습니다



ChatGPT



Gemini



Claude



초원

성도님 휴대폰에는 이미 AI 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고민도 여기에 묻습니다.
그 질문을, 우리 교회 설교가 받게 하십시오.

고민이 생기면 사람들은 유튜브에 “불안 설교”, “용서 설교”를 검색합니다. 이미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다만 그 검색이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로 돌아오지 않을 뿐입니다.

02

무엇을 만나

성도가 손에 쥐게 되는 것들

질문하면 설교가 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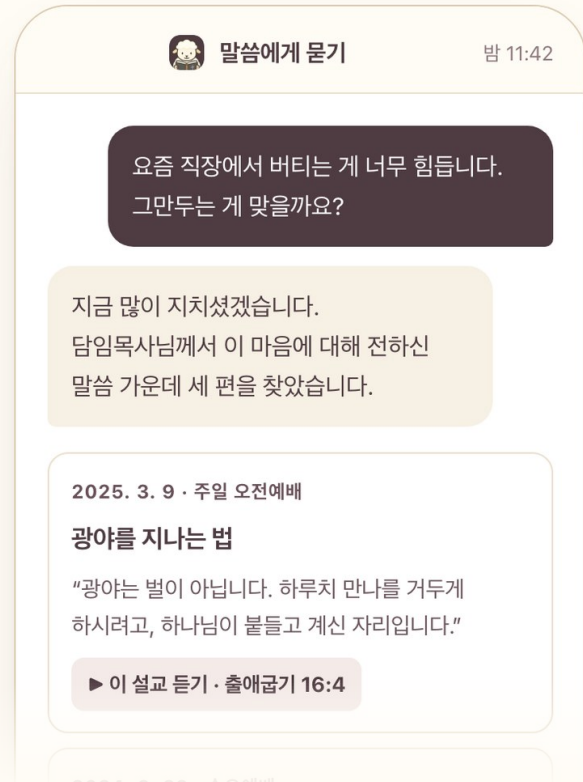
매주 도착하는 설교 노트

뜻으로 찾는 설교 도서관

설교가 데이터가 되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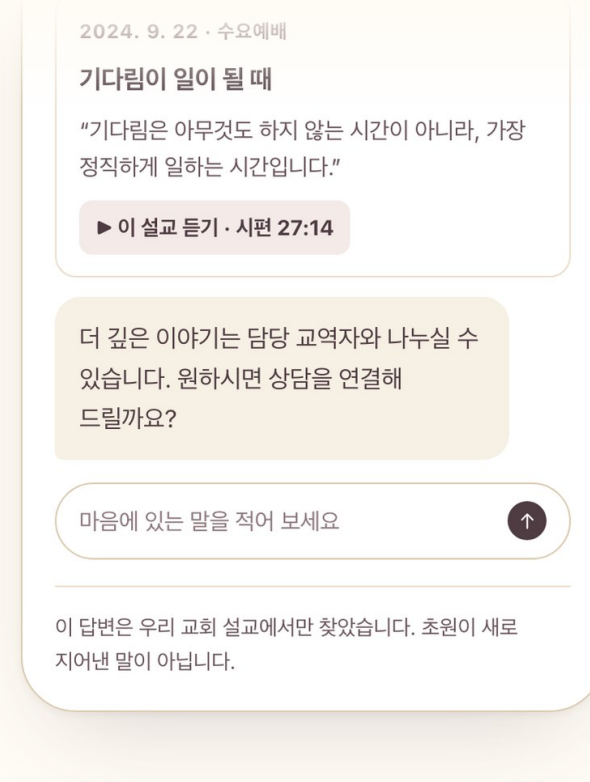


질문하면, 우리 교회 설교가 답합니다



① 성도가 그대로 적습니다

교역자에게 전화드리기 어려운 밤 11시 42분에도.



② 설교에서 찾아 답합니다

날짜 · 예배 · 본문이 함께 붙습니다.

이 답변은 우리 교회 설교에서만 찾았습니다. 무거운 고민은 담당 교역자 상담으로 연결합니다.

이 한 자리가 교회를 대신 지킵니다

교역자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닿지 못하던 시간을 채웁니다.

시간

문 닫힌 시간에도

새벽에도 출근길에도 물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가장 흔들리는 시간은 대개 교회가 닫혀 있는 시간입니다.

출처

우리 목사님의 말씀

인터넷의 일반적인 조언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실제로 선포된 말씀 안에서만 찾습니다.

근거

언제 하신 말씀인지

날짜·예배·본문이 표시되고 원문으로 갈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답은 드리지 않습니다.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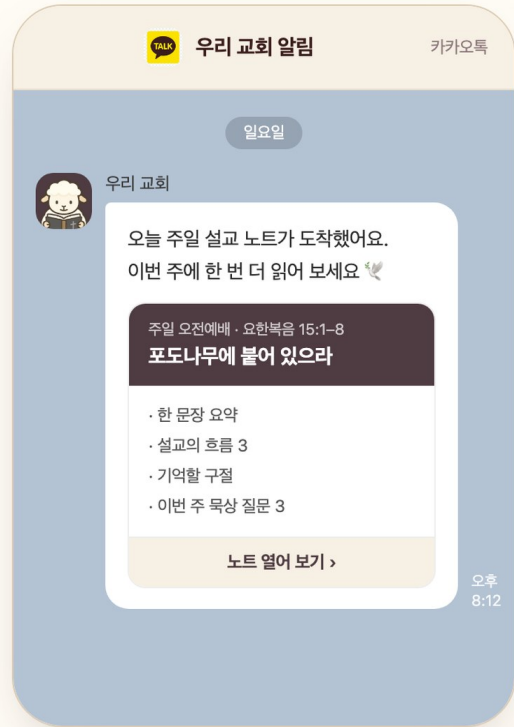
결국 사람에게로

무거운 고민은 담당 교역자 상담으로 연결합니다. 교회가 성도의 마음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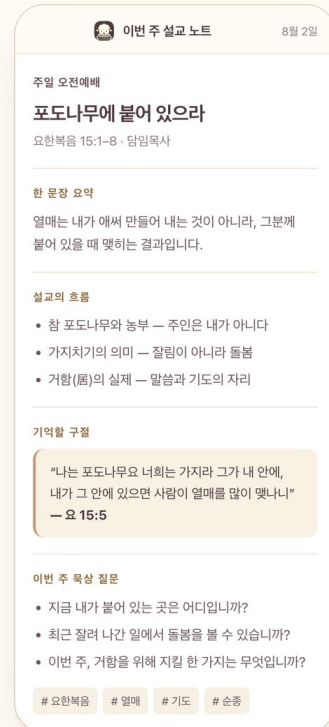
한 번 전한 설교가 그 주로 끝나지 않고, 몇 년 뒤 누군가의 가장 힘든 밤에 다시 찾아옵니다.



예배가 끝나면, 카카오톡으로 보내 드립니다



① 주일 저녁, 카카오톡 도착



② 눌러서 노트 열람

앱을 따로 열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도는 받은 메시지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복습을 위해 보냅니다

영상 40분을 다시 보지 않아도, 노트 한 장이면 그 주의 말씀이 정리됩니다.

한 장에 담기는 것

한 문장 요약 · 설교의 흐름 · 기억할 구절 · 묵상 질문 3 · 주제 태그

예배에 못 나온 성도도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주에도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노트 한 장이 한 주를 바꿉니다

복습

성도의 한 주

주일에 들은 말씀이 월요일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에 남아 있어 언제든지 다시 열립니다.

소그룹

구역 · 목장 자료

묵상 질문이 함께 발행되어, 소그룹 나눔에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연결

성경 본문으로

구절을 누르면 성경 본문이 열립니다. 읽고 묵상하는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검토

발행 전 교회 확인

AI 초안을 담당자가 검토·수정한 뒤 발행합니다. 설교 의도와 다른 내용이 나가지 않습니다.

주당 10~20분이면 검토가 끝납니다. 교회가 새로 배우실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단어가 없어도 뜻으로 찾아냅니다

🔍 용서

설교 12편 있음

2026. 5. 17 주일 오전예배 마태복음 18:21-35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

"용서는 감정이 회복되어야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 결단으로 시작해 감정이 따라오는 일입니다."

2025. 11. 9 수요일예배 누가복음 15:11-24

탕자를 기다린 아버지

"아버지는 아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달려갔습니다. 설명을 듣고 판단한 뒤가 아니었습니다."

◆ 이 설교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뜻이 같아서 찾아낸 설교입니다.

2024. 3. 24 사순절 특별예배 누가복음 23:32-43

십자가에서 하신 첫 말씀

"십자가에서 먼저 나온 말이 용서였다는 사실이, 복음의 방향을 알려 줍니다."

제목에 그 단어가 없어도 찾습니다

‘용서’로 검색하면 그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탕자를 기다린 아버지」까지 찾아냅니다. 단어가 아니라 뜻으로 맞춰 보기 때문입니다.

사역자에게는 검색이, 성도에게는 질문이

같은 능력이 두 가지 방식으로 쓰입니다. 설교 준비와 심방에서 지난 설교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쌍일수록 정확해집니다

백 편이 넘으면 성도가 무엇을 물어도 이 교회의 말씀으로 답을 찾습니다.



교회는 영상만 주시면 됩니다

1

받아쓰기

설교 음성을 통째로 글로 옮깁니다. 40분이면 원고지 수십 장 분량입니다.

2

흐름 파악

인사말·예화·본론·적용을 구분합니다. 요약의 정확도는 여기서 갈립니다.

3

성경 본문 연결

인용된 말씀을 찾아 정확한 장·절을 붙입니다. 장절 없이 내용만 말씀하셔도 찾아냅니다.

4

주제 정리

어떤 주제와 어떤 상황에 닿는 말씀인지 표시해 둡니다.

5

발행 · 추적

담당자가 확인해 발행하면 카카오톡으로 전달되고 검색 엔진에 쌓입니다.

교회가 하시는 일

영상 전달 · 주 10~20분 마지막 검토

초원이 하는 일

1 ~ 4단계 전부, 그리고 서버·보안·업데이트



03

왜 초원인가

이 일이 어려운 이유, 그리고 저희가 해 온 일

설교는 받아쓰기 앱으로 안 됩니다

성경을 아는 조수

지어낸 말은 나가지 않습니다

4년, 3,000개 교회

외주와 무엇이 다른가



설교는 받아쓰기 앱으로 안 됩니다

긴 맥락

40분이 하나의 이야기

앞에서 던진 질문을 30분 뒤에 회수합니다. 앞뒤를 함께 붙들지 못하면 “좋은 문장들”만 모은 엉뚱한 요약이 나옵니다.

구어체

쓰인 글이 아니라 말

반복되고, 되돌아가고, 회중에게 되물습니다. 억양과 구어체도 섞입니다.

성경 인용

장·절로 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보다 “포도나무 비유 있잖습니까”가 훨씬 많습니다.

신학 용어

같은 단어가 다른 뜻

은혜·소명·세상·육신 — 이 차이를 모르면 그럴듯하지만 신학적으로 어긋난 요약이 나옵니다.



초원은 원래 ‘성경 앱’입니다

성경 본문과 구절 구조를 4년간 매일 다뤄 왔습니다. 설교와 성경을 잇는 일에서 갈리는 지점입니다.

설교 받아쓰기 원문 · 자동 인식 결과

장·절을 말씀하지 않았지만 인용을 알아보고 구절을 붙였습니다. 이 표시들이 훗날 질문에 답을 찾는 실마리가 됩니다.

초원은 성경을 아는 조수입니다. 듣고, 어느 말씀인지 알아보고, 찾아 표시해 둡니다.

설교자가 장·절을 말씀하지 않았지만 인용된 내용을 알아보고 정확한 구절을 찾아 붙였습니다.
이렇게 붙여 둔 표시들이, 훗날 성도의 질문에 답을 찾아내는 실마리가 됩니다.



지어낸 말은 한 문장도 나가지 않습니다

할루시네이션 방지 기술

AI가 그럴듯한 말을 지어내는 현상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초원은 이것을 조심해서 쓰는 문제로 두지 않고 기술로 막습니다.

- ✓ 설교 원문에 없는 문장은 답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 ✓ 근거가 될 문장을 찾지 못하면, 답을 만들지 않고 멈춥니다
- ✓ 모든 문장에 출처(설교 · 날짜 · 성경 본문)가 따라붙습니다
- ✓ 새로운 해석을 덧붙이거나, 다른 목사님의 견해를 섞지 않습니다



검증

4년, 3,000개 교회. 검증은 끝났습니다

4년

2023년부터 성경 AI 한 가지에
집중해 왔습니다

대한성서공회

공회의 검수를 받았습니다. 본문이
임의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목사 12인

답변을 정기적으로 교리
검수합니다. 기술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3,000+

이미 3천 개가 넘는 교회가 초원을
쓰고 있습니다

AI로 무언가 해 보려는 회사는 많습니다. 그중 성경만 4년을 판 팀, 성서공회 검수를 거친 팀, 목사님이 상주해 답을 검수하는 팀은 드뭅니다.



외주는 껌데기를 만들고 떠납니다

외주 개발사에 맡기면

처음에는 그럴싸한 껌데기가 나옵니다.
계약이 끝나면 개발자는 떠나고, 매년 바뀌는
운영체제와 정책, 오류와 보안은 교회 뭉이
됩니다.

성도 개발자의 자원봉사로

시작은 가능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다만
본업이 있습니다. 운영·유지보수·개선은
끝이 없고, 바빠지시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권해 드리는 방식

초원과 함께

이 일만 하는 개발 전담 팀이 매일 붙어
있습니다. AI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성경
앱으로 4년째 유지했고, 회사로서도
2020년부터 살아남았습니다.

앱은 건물이 아니라 정원에 가깝습니다. 다 지었다고 끝이 아니라 매일 손봐야 살아 있습니다.
외주는 건물을 지어 주고 떠나는 일, 초원은 그 정원을 계속 함께 돌보는 일입니다.



04

도입과 계약

결정과 실행에 필요한 것들

‘우리 교회 전용 앱’의 뜻

교회가 할 일은 세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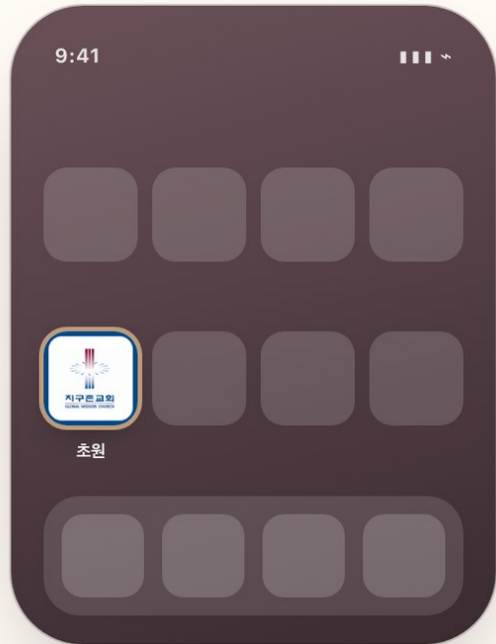
도입 절차 · 계약 구조

왜 지금 시작해야 하는가

다음 단계



‘우리 교회 전용 앱,’ 이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성도님 첫 화면 예시

실제 교회 로고로 제작해 드립니다

× 권해드리지 않는 방식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앱

사실상 용역 개발입니다. 운영체제는 해마다 바뀌어 그때마다 고쳐 다시 심사받아야 하고, 보안과 오류 대응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부담이 결국 교회로 돌아갑니다.

✓ 초원이 제안하는 방식

초원 위에 만드는 우리 교회 공간

안의 말씀은 우리 교회의 예배와 설교로 채워지고, 앱 아이콘도 교회 로고로 바꿔 드립니다. 개발·운영·보안은 초원이 계속 책임집니다.

※ 아이콘은 교회 로고로 바뀌지만, 아이콘 아래 이름은 앱스토어 정책상 ‘초원’으로 표시됩니다.



교회가 할 일은 세 가지뿐입니다

01

예배 영상 · 음성

유튜브 · 홈페이지 · 내부 파일 등 지금
올리시는 경로 그대로 연결합니다.

02

담당자 한 분

완성된 노트를 읽고, 어색한 문장을 고치고,
발행 버튼을 누르는 주 10~20분.

03

교회 로고 파일

앱 아이콘 제작용. 가능하면 배경이 투명한
원본(PNG · AI · SVG).

서버 · 앱 업데이트 · 보안 · 장애 대응은 계속해서 초원이 책임집니다. 교회가 새로 배우실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한 달이면 자리를 잡습니다

1

도입 상담

교회 상황·예배 구조·주당
설교 편수를 함께 확인합니다

2

계약

기본 3년 약정. 비용 구조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립니다

3

자료 전달 · 개발 설치

전용 공간과 커스텀 아이콘을
준비합니다

4

내부 확인

교역자들이 먼저 써 보시며
형식과 답변 범위를
다듬습니다

5

성도 공개 · 운영

이후로는 매주 자동으로
썸업니다



자동차 렌트와 같은 구조입니다

STEP 1 · 최초 1회

개발 설치비

교회 전용 공간 구축 · 아이콘 제작 · 기존 설교 연결 · 초기 세팅
= 선수금

STEP 2 · 매달

유지 · 개발비

출석 성도 수와 주당 설교 편수로 정해지는 정액
AI 처리 · 서버 운영 · 기능 개선 · 보안 대응 포함
매달 같은 금액이라 교회 예산을 세우기 쉽습니다

검색 · 질문 무제한 — 성도님이 몇 번을 묻든 비용은 늘지 않습니다.
기본 계약 3년 · 기간 중 인상 없음 · 연납 시 할인 · 세금계산서 발행

플랫폼과 설교 검색 엔진은 초원이 소유·운영하고, 교회는 그것을 온전히 이용하십니다. 설교와 그 데이터는 교회와 설교자의 것입니다.



1년 늦으면, 10년만큼 뒤처집니다

첫 달

첫 설교 노트가 도착하고 복습이
시작됩니다

6개월

자주 묻는 고민에 답하기
시작합니다

3년

웬만한 질문에 우리 교회 말씀으로
답합니다

그 이후

사역의 유산이 계속 일합니다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께

지금 시작하면 사역하시는 동안 전한 설교가 정리되어, 은퇴 이후에도 성도가 찾고 인용하고 다시 들읍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30년의 말씀은 열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영상으로 남습니다.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강단에 서 계신 분뿐입니다.



● 선착순 한정

2027년까지, 10개 교회만 함께합니다

교회마다 설교 형식과 신학적 결이 달라, 한 교회에 개발 인력이 충분히 붙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이 받으면 먼저 계약한 교회의 품질이 먼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함께할 교회를 10곳으로 제한하고, 계약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NEXT

다음 단계

먼저 30분만 이야기 나눠 보십시오. 상담과 견적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STEP 1

30분 상담

교회 상황과 예배 구조를 듣고,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 또는 화상으로 진행합니다.

STEP 2

견적 전달

교회 규모와 아카이빙 범위에 맞춰 개발 설치비와 월 이용료를 계산해 드립니다. 예산 범위를 먼저 알려 주셔도 됩니다.

STEP 3

결정

견적만 받아 보시고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행하시면 한 달 안에 첫 설교 노트가 성도님께 도착합니다.

초원 교회 협력팀

담당

shalom@chowon.in

이메일 · 상담 신청

church.chowon.in

서비스 안내

